

배우 이하늬, “영화 ‘유령’은 운명...전사의 몸을 원했죠”

영화 ‘유령’서 독립 투사 박차경 역 맡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작품이 날 선택”
“여리여리한 몸 포기...고강도 훈련 반복”

배우 이하늬(40)는 1000만 영화에 나온 배우다(극한직업). 시청률 20%를 넘긴 드라마에 나오기도 했다(열혈사제). 연기력이 일취월장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16부작 드라마를 홀로 이끌다시피 한 적도 있다(일더우먼). 그에게 분명 히트작이 있다. 하지만 누군가 이하늬의 대표작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답하기가 망설여진다. 대중이 그를 어떤 이미지로 각인할 정도로 강렬한 작품은 아직 만나지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18일부터는 이하늬에게도 대표작이 생길 것 같다. 영화 ‘유령’(1월18일 공개)이다. 개봉을 앞두고 만난 이하늬는 이 영화를 “특별히 소중한 작품”이라고 했다. “제가 한 모드 작품은 하나같이 제 자식 같죠. 그런데 ‘유령’은 분명 제 배우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분기점이예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이해영 감독이 연출한 ‘유령’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항일 조직 흑색단의 이야기를 그린다. 흑색단원 중 조선총독부에 잡히며 총독의 목숨을 노리는 스파이가 있고, 유령으로 불리는 이 인물을 잡기 위해 새로 투입한 총독부 경호대장이 용의자 5명을 외판 호텔에 가두게 된다. 스파이를 잡으려는 경호대장과 혐의를 벗으려는 용의자들의 대결이 담긴 작품이다.

이하늬는 흑색단원 중 한 명인 ‘박차경’을 맡았다. 총독 암살과 조선 독립이라는 거사를 위해 목숨을 건 투사이면서 동시에 이과

정에서 수많은 동료를 잃은데다가 사랑하는 사람마저 떠나보낸 슬픔에 잠긴 외로운 인간이기도 하다. 이하늬는 대사로 많지 않고 표정 변화도 적은 박차경을 특유의 깊은 눈빛으로 연기한다. “겉으로 곧바로 드러나는 연기를 하다보면 어떤 인물의 깊은 곳, 표현을 넘어서는 곳에 있는 무언가를 연기하고 싶어지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할 때, ‘유령’이 온 거예요. 가끔 어떤 작품은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이 저를 선택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유령’이 그랬어요.”

이하늬는 박차경 내면의 분노와 슬픔은 넘치기 직전의 찡찡 찡찡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거사를 위해 감정을 그 정도로만 유지하면서 울곧게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제대로 죽기 위해서 그냥 죽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이하늬의 표현이었다. “레이어가 겹겹이 쌓여 있는 인물이지요.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템스가 있어요.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또 연기하는 재미니까요.”

이하늬를 괴롭힌 건 박차경의 내면만이 아니었다. 박차경은 잘 훈련된 남성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진 말 그대로 투사다. 이하늬는 용의자 중 한 명인 통신과 감독관 ‘무라야마 준지’를 연기한 설정구와 수차례 맨몸 액션 연기를 보여주는 데 이어 각

종 총기 액션, 그리고 흑색단 동료들과 호흡을 맞춘 단체 액션도 선보인다. 앞서 출연한 일부 영화·드라마에서 액션 연기를 경험했지만, 이렇게 강도 높은 액션을 소화한 건 ‘유령’이 처음이었다. 이하늬는 “여성 배우에게 어울릴 법한 여리여리한 몸은 포기했다. 별키한 느낌의 전사의 몸을 갖기 위해 고강도 훈련을 했다”고 말했다.

“촬영 들어가기 8개월 전부터 무술 훈련을 했어요. 시간만 되면 했죠. 거의 매일 한 겁니다. 제가 원래 근육 운동을 일주일에 2~3번 했는데, 그것도 횟수를 늘렸어요. 강도도 높였죠. 총이 엄청나게 무거워서 그걸 들고 액션을 하려면 여리여리한 몸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전사의 몸이 되고 싶었어요. 나보다 체급이 높은 남자도 이겨낼 수 있고,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원했습니다. 크라브마가(Krav Maga)라는 무술까지 배울 정도였어요.” 대사가 많지 않은 박차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있지만 해도 운몽에서 그 단단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길 바랐다는 게 이하늬의 설명이었다.

최근 약 2년의 시간 동안 이하늬에게 많은 일이 있었다. ‘유령’을 2021년에 촬영했고, 그해 11월에 결혼했으며, 다음 해 6월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유령’이 세상에 나온다. 그는 이 시기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였다”고 했다. 이때 이하늬를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잡아 준 게 ‘유령’이었다. “폭풍이 몰아치는 시기였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령’이 없었으면, 제가 그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령’은 저한테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하늬는 딸을 돌보면서 배우 일도



해야 한다. 그는 출산 경험이 연기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했다. “더 편하고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빨리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제 연기가 어떻게 변할지 저도 궁금해요. 연기를 하게 되면 제 아이의 예쁜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럴 그 소중한 시간을 정말 잘 써야 돼요. 더 열심히 연기해야죠.”

이달의소녀, 데뷔 5년 만에 사실상 ‘해체 위기’



결그룹 ‘이달의 소녀’(LOONA)가 데뷔 5년 만에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

15일 대중음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는 이달의 소녀 멤버 최진·김림·진솔·최리 등 4명이 소속사 블랙베리 크리에이티브(이하 블랙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반면 같은 소송을 제기한 이달의 소녀 다른 다섯 멤버들인 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헤고원은 패소했다. 현 11명의 멤버 중 비비·현진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승소한 멤버들은 앞서 블랙베리를 상대로 한 계약 해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추(Chuu·김지우)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반해 패소한 5명은 얼마 전 변경된 계약 조항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와

블랙베리는 정산을 7대 3으로 나누는 계약을 맺었으나 지출 관련 조항 등으로 인해 비용이 매출의 70% 이상이면, 최종 정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브·여진·하슬은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팬 소통 서비스를 통해 팬들 ‘오빤’에게 심경을 털어냈다. 이들은 “심적으로 매일이 고통스러운 날들이었고 가슴에 트러블을 올려놓는 듯한 갑갑함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었다”며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청했다.

앞서 지난해 팀의 간판이던 추가 팀을 나가고 멤버 9명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달의 소녀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흘러나왔다. 이로 인해 애초 이달 3일 발매 예정이던 새 앨범 발매는 무기한 연기됐다. 오는 3월 예정된 일본 콘서트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달의소녀는 2018년 8월 12일자로 정식 데뷔하기 1년여 전부터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주목 받았다. 수십억원의 제작비를 쏟아부었다.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닌 결그룹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12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지도가 쌓여왔다. 재작년 앨범 ‘퀸덤2’ 준우승 후 첫 월드투어를 돌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 블랙베리는 자금난을 겪어왔고 이 과정에서 멤버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英오피셜 싱글 톱100 진입...美빌보드 핫100도 진입할듯



4세대 걸그룹 최초...‘OMG’ 수록곡 ‘디토(Ditto)’ 파죽지세

그들 ‘뉴진스(NewJeans)’가 미국 빌보드와 더불어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톱100 첫 진입에 성공했다. 또한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글로벌 주간 톱 송‘에서도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하며 파죽지세 인기를 이어갔다.

13일(현지시간)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뉴진스의 싱글 ‘OMG’의 수록곡 ‘디토(Ditto)’는 이번 주(13-19일) 싱글 톱100 차트에서 95위를 기록했다. 데뷔한 지 6개월밖에 안된 신인 그룹의 괄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오피셜 차트는 빌보드 차트보다 더 문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해당 차

트 순위에 든 팀은 싸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손에 꼽는다. 이번 주 싱글차트에 진입한 K팝 팀도 뉴진스가 유일하다.

이와 함께 ‘디토’는 같은 날 업데이트된 스포티파이 글로벌 주간 톱 송‘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앞서 음원 발매 4일 만에 81위(12월23일)로 이 차트에 첫 진입했던 ‘디토’는 48위(12월30일), 21위(1월6일)를 거쳐 매주 순위를 가파르게 끌어올렸다.

이달 2일 발매된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 ‘OMG’ 역시 지난주 스포티파이 글로벌 주간 톱 송‘ 95위에서 무려 65계단 뛰어오른 30위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팝 시장인 미국에서의 상

승세가 두드러졌다. 실제 ‘OMG’는 이번 스포티파이 미국 ‘주간 톱 송’에 48위로 첫 진입, 글로벌 인기 행보에 탄력을 더했다. 해외 현지 활동이나 프로모션 없이 거둔 성과다.

앞서 ‘디토’는 빌보드 ‘버블링 언더 핫 100’(1월14일 자) 8위에 올려둔 상태다.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아쉽게 진입하지 못한 25위까지 순위 차트다. K-팝 그룹 최단 기간(데뷔 156일 만 17위) 내 해당 차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지금 같은 기세라면 돌아오는 주에 공개되는 ‘핫 100’ 진입이 유력하다. 현재 K팝 4세대 걸그룹 노래 중 ‘핫 100’에 진입한 곡은 없다.

뉴진스는 이미 일본과 중국 음원 차트 정상은 석권했다. ‘OMG’로 오리온 주간 합산 싱글랭킹 정상(1월 16일 자)을 밟았으며, 중국 최대 음악 사이트인 QQ뮤직 ‘신곡 차트’에서 ‘디토’와 ‘OMG’가 줄곧 1위, 2위를 나란히 기록하는 쌍끌이 인기다.

국내 음원 플랫폼은 싸늘이 중이다. ‘디토’가 멜론, 지니, 벅스 등 주간 차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MBC TV ‘쇼! 음악중심’, SBS TV ‘인기가요’, KBS 2TV ‘뮤직뱅크’ 등 각종 음악방송 트로피도 수직 중이다.

임재범, 박혜원(HYNN)과 듀엣 ‘살아야지’

임재범은 지난 13일 방송된 JTBC ‘비긴어게인-인터미션’에서 힐링 버스킹을 펼쳤다.

이날 임재범은 하동균, 헤이즈, 박혜원(HYNN), 김필, 김현우(덕평스), 정성하와 박물관 야간 버스킹을 진행했다.

임재범과의 협연에 후배들은 긴장했다. 단체 합주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깬 것은 임재범의 가장이었다. 후배들은 임재범의 음색에 홀려 박수를 보냈고, 특히 헤이즈는 “너무 아름답다.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박물관 야간 버스킹을 위해 모인 이들은 어색함은 사라지고 음악으로 하나 된 훈훈한 선후배의 모습을 보였다.

본격 버스킹이 시작된 뒤 임재범은 박혜원



(HYNN)과 함께 ‘살아야지’ 듀엣을 선보였다. 박혜원(HYNN)은 “힘들었던 확장 시절 임재범의 ‘살아야지’를 들으며 위로받았다”라고 고백했고, 임재범은 “무엇이 어찌 됐든 아름다운 세상 살아가야 한다. 또 살아야 할 만 하다”라고 전했다.

빅뱅 태양·BTS 지민, 협업 통했다...아이튠즈 월드와이드송 1위

60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국내 음원 플랫폼들 발매 1시간 만에

K팝 2세대 대표 보이그룹 ‘빅뱅’ 멤버 태양(35·동영대)과 K팝 3세대 대표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28·박지민)의 협업이 전 세계에서 통했다.

14일 태양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에 따르면, 지민이 피쳐링한 태양의 새 디지털 싱글 ‘바이브(VIBE)’가 전날 발매 즉시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아이튠즈의 월드와이드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세계 각지에서 고른 인기를 누리며 60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정상에 올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국내 음원 플랫폼들에서도 발매 1시간 만에 상위권에 모두 차트인했다.

태양의 솔로 신곡은 2017년 8월 발표한 정



뉴시스